

# 한국적 신학사상 정립 위한 大歷程

## 통권 400호 기록한 월간 「기독교사상」



현발행인 김승영 목사.

전후 50년대의 '사상의 빈곤'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지난 1957년 8월에 창간된 월간 「基督教思想」(발행인 김승영)이 4월호로 통권 400호를 기록했다. 그동안 한국적 신학사상의 정립을 위한 다양한 논의의 공간을 제공해온 「기독교사상」(이하 「기상」으로 약칭)은 그 정치적·사회적 '진보성'으로 교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성계의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만큼 이번 400호 기념호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하겠다.

창간 이후 35년간 「기상」이 걸어온 발자취는 그대로 같은 기간 한국 신학계의 변화과정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잡지가 장수를 누리며 종교잡지로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현대 신학이론의 소개와 그것의 국내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진지한 모색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 시대인식 토대로 한 현대신학이론 소개

창간호의 '권두언'에서도 밝히고 있듯, 해방과 6·25를 막 지나쳐온 '혼돈과 무질서'의 사회상과 분파주의·소모적 신앙논쟁에 빠져 있던 당시 종교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 모든 현상의 근본원인인 예의 '사상의 빈곤'을 메꾸기 위한 신학적 노력의 일환으로 「기상」은 출발한다.

이러한 시대인식은 창간 무렵뿐만 아니라 그동안 줄곧 견지해온 「기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데, 따라서 지금까지 이 잡지를 통해 소개되고 주장돼온 이론들은 신앙과 현실, 신학과 사회과학을 접목시키고자 한 것들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간호에서 다룬 실존주의와 사회혁명에 관한 논문에서부터 시작해 성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의 소개,

정치와 교회문제, 교회의 혁신문제 등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 이외에도 서구의 최신 신학이론을 소개함으로써 신학계에 커다란 자극을 줌과 동시에 격심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60년대의 토착화 신학논의, 본 회퍼의 세속화이론과 비종교화 사상, 死神論 신학, 그리고 해방신학, 민중신학, 여성신학 등 일련의 '급진적' 신학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기상」이 창간 이래 지금까지 표방해온 또 하나의 신학적 입장은 이른바 '에큐메니즘'이다. 기독교 교파 통합운동, 교회일치운동을 일컫는 이 에큐메니즘의 구현을 위해 「기상」은 각 교단들의 협력 아래 운영되고 편집되는 교단 연합적, 초교파적 성격의 '종합지'를 지향해왔다.

그동안 「기상」에 참여한 역대 발행인과 편집인을 비롯한 주요 필자들의 면면도 이 잡지의 진보적이면서도 초교파적 성격을 증명해주는데, 홍현설(전 감신대학장) 김관석(전 기독교방송사장) 박형규(증경 기장총회장) 유동식(연세대 명예교수) 안병무(한신대 명예교수) 서남동(작고·전 한신대교수) 강원룡(크리스찬아카데미원장) 변선환(감신대학장) 문익환 목사 등을 대표적 인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기상」의 게재 내용과 집필진의 성격은 교계 일각으로부터 "자유주의 신신학과 급진주의 신학의 선전지" "유행신학의 선전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창간 초기부터 특히 보수적 성향의 교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기상」과 반대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수개의 사학지 출판을 유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상」에 대한 가장 강한 반발은 정치권에서 보였다고 할 만하다. 60년대 이래 정권이 바뀌면서도 계속됐던 「기상」에 대한 '탄압'은 곧 이 잡지의 인지도와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한데, 5·16 당시의 터키혁명관계 논문(61년 6월호) 3선개헌 당시의 '개헌론' 특집(69년 7월호), 그리고 70년대 유신시대의 '양심과 공포' 특집(71년 5월호) 등으로 인해 정간과 폐간의 위기까지 가는 한편 사전검열 속에서 급기야 85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6개월간 북한관계 리포트로 정간되기도 했던 것.

해방 이후 보수와 혁신의 양 극단으로 치닫던 기독교 신학계에 끼친 「기상」의 영향은 교계 안팎의 비판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가히 독보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신

다양한 현대 신학이론을 소개하며,

그것의 국내 수용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해온 「기독교사상」은

정치적으로도 진보적 색채를

땀으로써 그동안 교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지성계의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돼왔던 만큼 이번 40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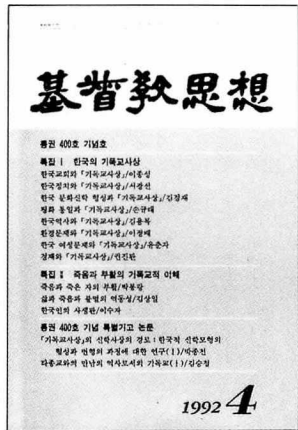
기념호가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학이론의 유입과 신학운동을 통한 대화적 실천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기상」은 그 선구자적 역할을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교회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신학을 요구하는 운동권 계층 사이를 매개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도 단순한 종교잡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 논문집 출간 등 기념사업 추진중

이러한 평가는 이번 400호 기념호에서도 증명되는 바, 그간의 「기상」의 역할과 현재적 의미에 대한 자리매김에서도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 교계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이들은 「기상」이 60년대 이후 한국 신학계를 이론적·실천적으로 주도해왔다는 점에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기상」측은 일부에서 지적하는 지나친 '진보성'은 '자유성'과 '개방성'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보수적 입장에도 지면을 할애해왔지만 그 영향력의 측면에서 진보적이었다는 자체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4월 6일 지령 400호 기념식을 치른 「기상」은 기념사업의 하나로 대대적인 논문집을 준비중이다. 그동안 기념호는 간간히 발행해왔지만, 지난 83년 300호 기념호부터는 기념논문집을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400호를 맞아도 그동안 잡지에 발표된 논문들을 주제별로 엮어낼 계획인 것. 「한국 역사와 기독교」 「한국의 신학사상」 「한국 교회와 이데올로기」 「한국의 정치신학」 등 4권의 300호 기념논문집에 이어 올 6월 경부터 「한국의 문화와 신학」 「한국의 정치와 신학」 「한국의 경제와 신학」 「한국의 평화와 신학」 「한국의 환경과 신학」 「한국의 여성과 신학」이라는 주제별로 400호 기념논문집이 출간된다.



또한 「기상」측은 앞으로 운영체제면에서도 일대 혁신을 가해 새로운 연대의 일신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창간 당시부터 대한기독교서회에서 발행되고 있는 「기상」은 현재 모든 출판물을 통괄하는 출판국 소속에서 준독립체제로 전환해 기획에서 독자관리, 광고관리, 영업관리까지 「기상」 자체내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400호를 계기로 체제 개편과 아울러 제3의 출범을 위해서 준비중"이라는 발행인 겸 편집인 김승영목사는 보다 폭넓고 다양한 신학이론의 소개뿐 아니라 그동안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교회 본연의 임무인 목회부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고 밝힌다. 구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제3세계 신학을 소개함은 물론 통일·평화신학, 생태신학, 여성신학, 영성신학, 동양신학 등의 최신 신학이론과 목회자들을 위한 양질의 설교자료와 실천신학 부분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나친 전문성으로 고정 독자층에만 의존했던 이제까지의 편집방향을 일부 수정, 보다 폭넓은 신학대중지로서의 변화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한편으로 역량이 있는 신학자 양성과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기독교 사상연구원'(가칭)을 개설해 연구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 정소연 기자